

논문 10

사회계급과 대학진학: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로를 중심으로

신 광 영* · 이 병 훈**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세대의 불평등이 자녀 세대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자녀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 세대가 상승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안정된 직장 and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으로의 진학은 소수에게만 열려있다. 그렇다면 자녀 세대의 교육불평등과 부모 세대의 불평등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부모 세대의 불평등 가운데서도 계급불평등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본 연구는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대학진학과 학교 및 학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자녀의 생애과정에 걸쳐서 나타난다. 진학, 취업, 결혼 등 생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모 계급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부모의 계급은 교육에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친구관계나 가족관계 등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 기대수준과 성취동기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대학진학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김영화·김병관 1999; 방하남·김기현 2002 및 2003; 장상수 2004). 이들 연구의 결과들은 다른 사회들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일한 양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교육 성취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진학율은 80%를 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가와 진학 한다면 어떤 대학이나 어떤 학과로 진학하는가 하는 질문 일 것이다. 한국과 같이 대부분의 동년배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어떤 조건의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가를 밝히는 것과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위계적으로 서열화된 대학위계에서 어떤 위치의 대학으로 진학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방하남·김기현(2003)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진학여부와 관련된 양적 계층화보다 진학경로와 관련된 질적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회양극화와 부와 빈곤의 세습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진학과 관련하여 사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양극화는 곧 교육양극화를 이어서 심각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부유한 가정에서는 대학진학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으로의 진학 이외에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급에 따른 대학진학 유형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계층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첫째,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계급 간 대학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부모의 계급과 대학으로의 진학/미진학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 다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부모의 사회계층과 대학위계에서 자녀가 다니는 대학의 위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계급과 자녀의 학과 선택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서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20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대학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대학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980년 25세 이상 인구에서 대학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비율이 7.7%에 불과하였으며, 1990년 14.1%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31.4%로 증가하여 1980년 이후 거의 매년 거의 1%씩 증가하였다. 2007년 현재 동일한 연령대의 대학진학은 83%에 이르러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의 대중교육화 과정을 통해서 교육불평등은 사라진 것인가? 기존의 연구들은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배경이 교육수준에 미치는 정도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김영화·김병관 1999, 장상수 2000). 직업 집단 간 혹은 계급 간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률에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가 진전되고 교육기회와 확대되면서 기속적 지위로서의 가족배경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든다는 서구의 연구 결과들과는 매우 다른 결과였다.

그렇다면, 가족배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배경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접근을 보여준다. 첫째는 지위획득모형(status attainment model)에 기초하여 가족배경을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으로 보는 접근이다 (차종천 1992; 김영화·김병관 1999). 블라우와 던컨(Blau and Duncan 1966)의 고전적인 지위획득모형에 기초한 차종천(1992)과 김영화·김병관(1999)의 연구는 부모의 직업과 교육이 자녀의 교육과 직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지위획득모형에서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은 모두 연속 변수로 직업지위 점수와 이수한 교육 연수로 다루어진다.

두 번째 접근은 지위획득모형에 추가하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분석모형으로서 부모의 직업과 교육이외에 이외에 가족의 소득계층, 사회적 자본, 고등학교 유형과 고교 소재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방하남·김기현 2002 및 2004; 김현주 이병훈 2006). 방하남·김기현(2004)는 코호트 분석을 통하여 진학여부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은 줄어들고 있지만, 진학경로와 수능서열에 미치는 가족배경이 영향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대학진학 여부와 수능점수 서열이 고교 소재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전체 교육과정에 작용하고 있으며, 상층 계층은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체제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방하남·김기현 2004: 198).

세 번째는 가족배경으로서 사회 계급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장상수 2004 및 2006). 장상수(2004)는 직업 대신에 신베버주의 계급론자인 골드썸(John Goldthorpe)의 계급구분을 분석에 도입하여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보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에 계급을 포함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성의 경우 진학에 미치는 부의 계급 효과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부의 계급에 따른 차이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에릭슨과 골드썸의 EGP 5계급 모형에 기초하여 계급을 서비스계급, 화이트칼라 하층, 자영업자, 농민과 육체노동자 계급으로 구분한 후, 부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젠더 및 연령 코호트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계급의 영향력은 하급단계 진학보다 상급단계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계급의 영향력이 여성의 경우에서 더 크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2004: 62-64; 2006: 147-148). 계급의 효과가 더 높은 단계의 진학에서 나타나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지만, 여성의 경우에 부의 계급이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발견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교육 불평등에 관한 중요한 발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 가지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는 가족배경과 교육 불평등에 관한 논의에서 가족배경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가족배경 변수들과 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특히 지위획득모형에 기초한 연구들에서 그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

둘째, 젠더에 대한 분석이다. 젠더를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분석하는 것과 남성과 여성 간의 각기 다른 사회적 과정을 가정하여 독립적인 표본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은 젠더와 교

육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젠더를 독립변수로 추가하는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단지 분석모형에서 젠더를 추가하는 부가적인 모형(additive model)으로만 인식하는 것이다(방하남·김기현 2002 및 2004). 반면에 표본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변수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장상수의 경우 2중 상호작용 변수와 3중 상호작용 변수를 분석에 고려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개인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속성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교육성취는 교육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며, 개인들은 진학단계별 주어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 여부에 따라서 다음 단계의 진학이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내용은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성취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적 속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하남·김기현(2002 및 2003)과 김현주·이병훈(2006)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교계열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고교계열이 독립변수의 하나로 다루어져 교육성취에 미치는 제도적인 요인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세 가지 다른 접근을 택했다. 먼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키는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 oriented approach) 대신에, 사회 집단적 (group oriented approach) 접근을 시도한다.¹⁾ 변수 중심적 접근은 교육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과 관련하여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소득, 연령, 지역 등을 교육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한다.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과 같은 변수들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가족배경을 보다 다양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Coleman and Hoffer 1988; Morgan and Sorensen 1999; Lin 1999; 방하남 김기현 2004; Kim and Schneider 2005). 이러한 접근들은 독립변수의 양적 차이에 따라서 진학이나 교육성취가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회집단의 차이를 밝히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

사회 집단적 접근은 사회집단들 사이의 차이는 양적인 변수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차이에 근거하며, 이들 질적인 차이가 양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본다.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범주로서의 사회계층에 따라서 교육성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양적인 차이는 이들 집단의 포괄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보다는 변수화된 집단의 속성을 부분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사회적 기제를 밝히기 위해서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층화 과정을 분석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사회계층을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독립변수의 하나로 고려한 것과 달리 사회계층에 따라서 교육성취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소득이나 교육과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은 사회계층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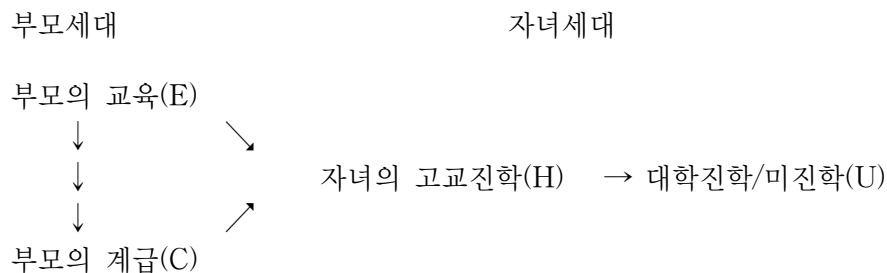
1) 변수중심 접근과 사회집단 중심 접근은 레이긴(Ragin 1987)이 제시한 비교연구방법의 두 가지 접근인 변수중심 비교연구와 사례중심 비교연구 방법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단일한 사회 내에서의 비교라는 점에서

세 번째, 대학진학과 학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질적인 범주들이 대부분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선형적인 연속변수라기보다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 사이에 생활기회와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서 비연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범주형 자료분석 기법인 대수선형모형(loglinear model) 분석과 로짓회귀분석을 동시에 사용하여 분석한다.

III. 자료 및 분석 결과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1-2차년도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그림 1]의 분석모형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2004년부터 실시되어온 교육고용패널 조사는 학생 6,000명(중학생 2,000명, 일반계 고등학생 2,000명, 실업계 고등학생 2,000명)과 학교 행정가 300명을 패널로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2004년) 고등학생 패널의 대학진학 여부 및 선택 전공에 대한 계급적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2차년도(2005년)에 대학 진학자 2,456명(일반고 출신 1,391명, 실업고 출신 1,065명)과 취업 및 비진학자 1,022명(일반고 출신 398명, 실업고 출신 624명) 총 3,478명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151명을 제외한 3,327명(일반고 출신 1,675명, 실업고 출신 1,652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²⁾ 대학진학 여부에 대해서는 2차 패널의 대학생 자료와 취업·비진학자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한편, 대학진학의 영향요인에 대한 변인들에 대해서는 1차 패널의 가구 자료 및 2차년도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³⁾ <표 1>에서는 분석대상의 인적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대학진학의 계급효과에 대한 분석모형

- 2) 교육고용패널에는 실업계 학생 비중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과대표집 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 3차 패널자료에서도 대학생 및 취업·비진학자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연구의 초점이 대학진학에 대한 계급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려는 의도에서 2차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다만, 2차 패널에 비해 3차 패널의 대학생 수가 적잖게 줄어드는 변화를 보이고 있어 대학생의 지위변동에 대한 분석이 추후 흥미로운 연구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분석 변인

이번 연구의 분석대상이 삼고 있는 종속변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1차 패널 고등학생들의 2005년(2차 패널) 대학 진학여부에 대해 크게 4년제 대학-전문대학-취업·비진학의 3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진학 대학과 선택 전공을 또 다른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는 바, 전자의 대학범주에는 전문대와 4년제 일반대학을 포괄하며 또한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중앙일보의 2006년 대학평가의 종합순위와 사회적 평판 순위를 고려하여 상위 25개 대학⁴⁾과 여타 대학으로 구분하고 있는 한편, 후자의 대학전공에 대해서는 인문사회교육계열·공학자연계열·의약학계열·예체능계열의 4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설명변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그림 1]에서 대학진학 여부 이전 단계의 세 요소인 부모의 교육, 부모의 계급과 고등학교 유형이 설명변인이다. 먼저 사회계급은 재산관계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자본가 계급, 삐띠부르주아지,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무소유 계급을 구분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 가운데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자본가 계급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나 가족노동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삐띠부르주아지로 구분하였다. 비소유 계급은 피고용자로서 이들 가운데 직업이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경우 중간계급으로 그리고 생산직인 경우 노동계급으로 구분하였다. 판매직, 서비스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이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중간계급으로 분류하였고, 고졸 이하인 경우 노동계급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전문대학 졸업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학졸업자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켰다. 현재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모의 연령대가 대체로 40대와 50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와는 매우 다른 교육체제 하에서 학교를 다녔다.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에 학교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계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실업계로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를 포함시켰다. 다른 하나는 일반계로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를 포함시켰다. 이들 변수들의 분포와 속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4) 상위 25개 대학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POSTECH,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부산대, 건국대, 아주대, 경북대, 카톨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한국외대, 동국대, 국민대, 영남대, 홍익대가 포함되어 있다.

〈표 1〉 분석대상자의 인적 속성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계
부모교육	중학교 이하	888(26.7%)
	고등학교	1473(44.3%)
	전문대학 이상	658(19.8%)
	무응답	308(9.3%)
부모계급	자본가	481(17.0%)
	뿌띠부르주아지	953(33.7%)
	중간계급	364(12.9%)
	노동계급	1031(36.4%)
성별	남	1,822 (54.8%)
	여	1,505 (45.2%)
고교계열	일반고	1,675 (50.3%)
	실업고	1,652 (49.7%)
대학진학 여부	4년제 대학	1,550 (46.6%)
	전문대학	806 (24.2%)
	취업/미진학	971 (29.2%)
합 계		3,327 (100%)

참고: 피고용자인 경우 부모교육 무응답 사례는 계급분류에서 제외되었음.

〈표 2〉 대학진학 여부 자료 (N=2823)

교육수준/계급		고등학교 이후 진로			
		미진학	전문대학	일반대학	
중등이하	C	실업계	7	22	15
		일반계	4	10	16
	PB	실업계	105	80	67
		일반계	20	22	81
	M	실업계	1	1	0
		일반계	0	0	5
W	실업계	119	90	37	
	일반계	14	23	61	
고등학교	C	실업계	18	41	41
		일반계	33	17	95
	PB	실업계	71	74	72
		일반계	48	45	178
	M	실업계	11	15	12
		일반계	15	11	51
W	실업계	83	110	86	
	일반계	61	33	171	
초대졸 이상	C	실업계	5	14	18
		일반계	38	10	73
	PB	실업계	3	11	10
		일반계	15	8	42
	M	실업계	4	17	15
		일반계	51	8	146
W	실업계	8	14	14	
	일반계	25	8	73	

참고: C는 자본가, PB는 뿌띠부르주아지, M은 중간계급, W는 노동계급을 각각 지칭한다.

분석은 먼저 <표 2>에 제시된 4차원 교차표 분석을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4차원 교차표 $E \times C \times H \times U$ 에서 $f(ijkl)$ 은 관찰된 빈도를 지칭하며, $F(ijkl)$ 은 부모의 교육수준(i), 부모의 계급(j), 자녀의 고교계열(k), 자녀의 고교졸업후의 진로(l)의 기대빈도를 지칭한다. 4차원 교차표의 포화모형은 다음과 같다.

$$F(ijkl) = \tau\tau_e(i)\tau_c(j)\tau_h(k)\tau_u(l)\tau_{ec}(ij)\tau_{eh}(jk)\tau_{eu}(il)\tau_{ch}(jk)\tau_{cu}(jl)\tau_{hu}(kl) \\ \tau_{ech}(ijk)\tau_{ecu}(ijl)\tau_{ehu}(ikl)\tau_{chu}(jkl)\tau_{echu}(ijkl) \quad (1)$$

여기에서 파라미터 τ 는 일반적인 정상화 제약을 받는다. (1)식을 대수선형모형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log F(ijkl) = \mu + \mu_e(i) + \mu_c(j) + \mu_h(k) + \mu_u(l) + \mu_{ec}(ij) + \mu_{eh}(ik) + \mu_{eu}(il) + \mu_{ch}(jk) \\ + \mu_{cu}(jl) + \mu_{hu}(kl) + \mu_{ech}(ijk) + \mu_{ecu}(ijl) + \mu_{ehu}(ikl) + \mu_{chu}(jkl) \\ + \mu_{echu}(ijkl) \quad (2)$$

여기에서 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정상화 제약을 받는다. $\sum \mu_e(i) = \sum \mu_c(j) = \sum \mu_h(k) = \sum \mu_u(l) =$

$$\sum \mu_{ec}(ij) = \sum \mu_{eh}(ik) = \sum \mu_{eu}(il) = \sum \mu_{ch}(jk) = \sum \mu_{cu}(jl) = \sum \mu_{hu}(kl) = \\ \sum \mu_{ech}(ijk) = \sum \mu_{ecu}(ijl) = \sum \mu_{ehu}(ikl) = \sum \mu_{chu}(jkl) = \\ \sum \mu_{echu}(ijkl) = 0.$$

이하의 분석은 2방향 상호작용과 3방향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Christensen 1990: 99-166; Clogg and Shihadeh 1994; Power and Xie 2000: 129-146).

IV. 분석결과

<표 3>은 대수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모형들은 각기 상이한 인과적인 모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형(1)은 부모의 교육, 부모의 계급, 자녀의 고교 계열, 자녀의 대학 진학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다. 모형(1)은 보다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한 기본 모형이다. 모형(2)은 부모의 교육과 계급 사이에 관계가 있지만, 부모의 계급이나 교육수준이 자녀의 고교계열, 부모의 계급과 자녀의 대학진학 여부와 형태 간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다.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하면,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계급 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모형의 G^2 값의 차이와 두 모형의 자유도(df) 차이를 살펴보면, 자유도 6차이에 G^2 는 무려 520.75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계급 간의 관계가 없다는 가설(전제)을 부정하는 결과이다. 모형(3)은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계급은 독립적이며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고교 계열, 부모의 계급과 자녀의 고교계열, 자녀의 고교 계열과 고교 졸업후 진로 간에 관계가 유의미하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 모형이다.

모형(6) 이하의 모형은 2차원 상호작용을 분석에 고려하여 고교 이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모형(5)와 모형(6)을 비교하면, 고교계열에 따라서 고교 졸업 이후 진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 자유도 감소가 2에 불과하지만, G^2 는 무려 408.22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출신 고교의 계열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계급은 모두 자녀의 고교졸업 이후 진로에 직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7)과 모형(8)을 모형(6)과 각각 비교하면, 모형(7)의 자유도가 4 감소에 G^2 는 27.49 감소하였고, 모형(8)의 경우 자유도 6 감소에 G^2 는 14.81 감소하여 모두 유의도 0.05 수준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상호작용 모두를 고려한 모형(9)과 모형(7)을 비교하면,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고교 이후의 진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의 계급과 자녀의 고교 이후의 진로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고교 계열 선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고교 이후의 진로 선택에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고교 계열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교 졸업 이후의 진로 선택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3차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형(10) 이하의 모형 분석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 3차 상호작용 변수 가운데 유의미한 것은 EHU와 CHU로 부모의 고교계열에 따라서 고교 졸업후 진로가 달라지지만, 달라지는 방식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과 고교계열에 따라서 졸업 후의 진로가 달라지는 방식이 부모의 계급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3변수 상호작용 가운데 ECH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모의 계급과 자녀의 고교계열선택 간의 관계가 부모의 학력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형(14)는 모형(10)과 모형(12)에 비해서 각각 자유도를 고려한 G^2 가 유의미하게 크게 낮아졌다.

〈표 3〉 선형대수모형 분석 결과 (통합 표본)

모형	G^2	df	Δ
(1) (E, C, H, U)	1549.79	63	

(2) (EC, H, U)	929.04	57
(3) (EC, CH, U)	755.48	54
(4) (EC, EH, U)	602.23	55
(5) (EC, CH, EH, U)	570.47	52
(6) (EC, CH, EH, HU)	162.25	50
(7) (EC, CH, EH, HU, EU)	134.76	46
(8) (EC, CH, EH, HU, CU)	147.44	44
(9) (EC, CH, EH, HU, EU, CU)	125.06	40
(10) (EC, CH, EH, HU, EU, CU, EHU)	54.64	36
(11) (EC, CH, EH, HU, EU, CU, ECH)	121.17	34
(12) (EC, CH, EH, HU, EU, CU, CHU)	76.78	34
(13) (EC, CH, EH, HU, EU, CU, ECU)	100.19	28
(14) (EC, CH, EH, HU, EU, CU, EHU, CHU)	29.47	30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실이지만, 어떤 계열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느냐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배경으로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계급이 자녀의 고등학교 계열(실업계 고교 대 일반고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계급은 직접 고교 졸업 이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급이 고교졸업 이후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교 계열을 매개로 해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대학진학 여부는 전단계로서 고등학교 계열에 의해서 크게 결정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계열 선택에 계급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위의 분석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분석이다. 성별에 따른 진학과 학업성취 차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장상수 2004; 김현주 이병훈 2006)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성별은 교육성취에 대단히 다른 기제로 작동한다. 여기에서는 남성 표본과 여성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젠더와 관련된 여러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가정한 것이다.

〈표 4〉 선형대수모형 분석 결과 (남성 표본)

모형	G ²	df	△
(1) (E, C, H, U)	893.25	63	
(2) (EC, H, U)	523.20	57	
(3) (EC, CH, U)	450.58	54	
(4) (EC, EH, U)	362.19	55	
(5) (EC, CH, EH, U)	345.60	52	

(6) (EC, CH, EH, HU)	108.61	50
(7) (EC, CH, EH, HU, EU)	97.22	46
(8) (EC, CH, EH, HU, CU)	99.34	44
(9) (EC, CH, EH, HU, EU, CU)	90.71	40
(10) (EC, CH, EH, HU, EU, CU, EHU)	56.75	36
(11) (EC, CH, EH, HU, EU, CU, ECH)	85.81	34
(12) (EC, CH, EH, HU, EU, CU, CHU)	54.77	34
(13) (EC, CH, EH, HU, EU, CU, ECU)	70.29	28
(14) (EC, CH, EH, HU, EU, CU, EHU, CHU)	31.94	30

<표 4>와 <표 5>는 각각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대수선형모형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표본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남성의 경우 부모의 계급이 고교졸업 이후의 진로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표 4>의 모형(6)-모형(8)이나 모형(9)-모형(10)), 여성의 경우는 여전히 부모의 계급이 고교졸업 이후 진로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의 모형(6)-모형(8)이나 모형(9)-모형(10)). 또한 3차원 상호작용에서 남성의 경우 부모의 계급과 자녀의 고교 졸업 이후의 진로 간의 관계가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변하지 않은 것(ECU)으로 나타났고, 이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 5> 선형대수모형 분석 결과 (여성 표본)

모형	G ²	df	BIC
(1) (E, C, H, U)	743.55	63	
(2) (EC, H, U)	481.68	57	
(3) (EC, CH, U)	411.84	54	
(4) (EC, EH, U)	326.17	55	
(5) (EC, CH, EH, U)	310.16	52	
(6) (EC, CH, EH, HU)	107.35	50	
(7) (EC, CH, EH, HU, EU)	88.97	46	
(8) (EC, CH, EH, HU, CU)	92.24	44	
(9) (EC, CH, EH, HU, EU, CU)	76.23	40	
(10) (EC, CH, EH, HU, EU, CU, EHU)	40.24	36	
(11) (EC, CH, EH, HU, EU, CU, ECH)	73.01	34	
(12) (EC, CH, EH, HU, EU, CU, CHU)	53.88	34	
(13) (EC, CH, EH, HU, EU, CU, ECU)	64.05	28	
(14) (EC, CH, EH, HU, EU, CU, EHU, CHU)	-	-	

참고) 모형(14)의 경우 표집 0(sampling zero) 향으로 인하여 통계적 추정 불능.

다음은 사회계층에 따라서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이 달라지는가를 분석한다. <표 6>는 대학에 진학한 경우 전문대학, 상위 25개 대학과 기타 대학으로 대학을 3개로 구분하고 부모의 계급과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전문대학 대신에 상위 25개 대학에 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항로짓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표 6>의 모형 I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계급과 학력에 따라서 전문대학 대신 상위 25개 대학에 들어가는 승산(odds)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대신 상위 25개 대학에 들어가는 노동계급 자녀와 중간계급 자녀를 비교하며, 중간계급 자녀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가는 1.625배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학력에 따른 차이로 부모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전문대 대신 상위 25개 대학에 들어가는 승산 6배 정도 높았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고교계열에 따른 차이로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이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보다 전문대학 대신 상위 25개 대학에 들어가는 승산은 무려 26배 정도($1/e(-3.260)=26.32$)에 달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전문대학 대신 상위 25개 대학에 들어가는 승산이 $e(-.355)=.701$ 로 오히려 더 낮았다.

전문대학 대신에 기타 일반대학에 들어가는 경우, 부모의 계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도 상위 25개 대학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부모의 자녀가 중등 이하의 학력을 지닌 부모의 자녀에 비해서 전문대학 대신에 상위 25개 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은 1.4배 정도 높았고,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자녀의 경우는 중등 이하의 학력을 지닌 부모의 자녀에 비해서 2.28배 정도 그 가능성이 높았다. 전문대학 진학과 기타 일반대학 진학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고교 계열이 대단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전문대학 대신에 기타 일반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은 5배 정도 높았다. 남성과 여성의 비교에서도 상위 25개 대학의 경우처럼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낮았다.

<표 6>의 모형 II는 가족 배경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가족의 자산 규모, 주거형태(자가와 전월세)와 월소득 그리고 문화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해외여행 유무와 월 문화비 지출 그리고 직접적으로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 규모 등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먼저 <표 6>의 모형 II에서 전문대학 대신 상위 25개 대학에 들어가는 승산의 경우 부모의 계급과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닌 부모의 자녀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부모의 자녀에 비해서 전문대 대신 상위 25개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은 3.4배($e(1.216)=3.37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차이가 없이 여전히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고교 계열로서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에 비해서 전문대학 대신 상위 25개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으로서 월소득에 따른 차이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도 유의미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을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전문대학 대신 상위 25개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은 2.7배($e(.999)=2.7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진학과 기타 일반대학교 진학을 비교한 <표 6>의 오른쪽 모형 2의 경우는 부모의 계급과 학력 이외에 다른 가족배경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계급은 이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젠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월소득에 따른 차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고교 계열에 따른 차이였다. 전문대학 대신에 기타 4년제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은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에 비해서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 5배 정도($1/e(-1.561)=4.76$) 높았다. 상위 25개 대학을 제외한 기타 일반대학이 대부분 지방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표 6> 대학유형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다중로짓 회귀분석 결과

	상위 25개 대학/전문대		기타 일반대학/전문대	
	모형 I	모형 II	모형 I	모형 II
성별(더미) 남성	-.355*	-.375*	-.449***	-.448**
고교계열(더미) 실업계	-3.260***	-3.829***	-1.640***	-1.56***
남성 보호자의 학력 (기준=중학 이하)				
고졸	.668*	.369	.337**	.130
전문대 졸업 이상	1.774***	1.216***	.825***	.529**
부모계급 (기준=노동계급)				
자본가	.485*	.131	.208	.042
빚부르주아지	.408	.527*	.338	.139
중간계급	.703*	.496	.297	.201
가구 월소득(로그)		.664**		.397**
가구 월 문화비(로그)		-.053		.031
학생 사교육비(로그)		.126		.125***
자산(로그)		.074		.126
해외여행(유=1)		.999**		.294
주택범주(자가=1)		-.148		-.041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29		-1.048***
도농 시/면		1.010***		.146
F (sig.)				
Pseudo R ²	.235	.277	.235	.277
사례수	2062	1929	2062 1929	1929

주: ()안은 표준편차. * p<.1, ** p<.05, *** p<.01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사회계급과 교육불평등 간의 관계를 대학진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시도한 것은 대학진학 여부와 대학진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분석하기 전에 교육불평등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교육불평등의 발생하는 사회적 과정을 인과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변량 분석에 치중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교육불평등 형성 경로 모형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불평등 과정을 분석하였다. 교육불평등 형성 경로는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제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형태를 한국 교육제도의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선선형모형 분석에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계급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진학한 고등학교 형태가 그 이후의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계급은 특히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시 고등학교 계열(실업계 혹은 일반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적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진학시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남성과 여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에 미치는 계급의 영향력은 고교 계열을 매개로 해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 대학진학과 관련된 선택에 계급이 어느 정도 직접적인 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을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한 다변량 로짓회귀분석의 경우 부모의 계급의 효과는 전문대학과 상위 25개 대학 승산에서 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과 기타 일반대학 승산에서 유의미하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급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부모 학력의 경우 중졸 이하와 고졸 사이의 차이는 없었으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와 전문대 졸업 이상의 부모는 전문대 진학 대 상위 25개 대학 진학이나 전문대 진학 대 기타 일반대 진학을 비교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대단히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족 배경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월소득과 해외여행과 같은 경제적 자원과 문화자본이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전문대학 대신 상위 25개 대학 진학의 승산과 전문대학 대신 기타 일반대학 진학 승산에 월소득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월소득과 계급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월소득을 분석 모형에 도입하면서, 계급의 효과가 낮아지거나 사라졌다. 해외여행도 계급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지만, 해외여행이 효과는 전문대학 대신 상위 25개 대학 진학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제한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대단히 컸다는 점에서 해외여행과 같은 가족생활의 단면이 여가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수선형모형과 다변량 로짓회귀분석을 동시에 시도하여 교육불평등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였다.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급과 교육간의 인과적 기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위한 예비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화·김병관. 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 연구* 37(1): 155-172.
- 김현주 이병훈. 2006. “성별 학업성취에 관한 가족배경 연구: 성차이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_____. 2004.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37(4): 31-65.
- _____. 2007.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서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 사회학* 39(5): 119-151.
- 장상수. 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1): 51-75.
- _____. 2006.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 기회: 누가 왜 딸을 대학에 보내는가?” *한국사회학* 40(1): 127-156.
- 차중천. 1992. “사회계층의 구조와 과정” 황일청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 Blau, Peter and O. D. 1966. *Occupations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Bowles, Samuel. 1977. "Unequal Education and the reproduction of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in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ed. by J. Karabel and A. H. Halsey, New York: Oxford.
- Bowles, Samuel and Herbert Gintis.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Cheung Sin Yi and Robert Anderson. 2003. "Time to Read: Family Resource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Britai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4(3): 413-433.
- Chistensen, Ronald. 1990. *Log-linear Models*. New York: Springer-Verlag.
- Clogg, Clifford C. and E. S. Shihade h. 1994. *Statistical Models for Ordinal Variabl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Coleman James and Thomas Hoffer. 1988.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s: The Impact of Communities*, New York: Basic Book.
- Hauser, Robert M. and David L. Featherman. 1977. *The Process of Stratification, Trends and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Hauser, Robert M. and William Swell. 1986. "Family Effects in Simple Models of Education, Occupational Status and Earnings: Findings from Wisconsin and Kalamazoo Stud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83-S155.
- Haveman, Robert H. and Timothy M. Smeeding. 2006. "The Role of Higher Educaiton in Mobility" *The Future of Children* 16(2): 125-150.
- Hendrickx, John and Harry B. G. Ganzeboom. 1998.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in the Netherlanders, 1920-1990: A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4(4): 387-403.

- Jonsson, Jan O. and Colin Mills. 1993. "Social Class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A Swedish-English Comparison I"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2): 213-247.
- Kerckhoff, A. C. 1989. "On the social psychology of social mobility processes" *Social Forces*, 68(1): 17-25.
- Kim, Doo Hwan and Barbara Schneider. 2005. "Social Capital in Action: Alignment of Parental Support in Adolescents' Transition to Postsecondary Education" *Social Forces* 84(2):1181-1206
- Morgan, Stephen and Aage Sorensen. 1999. "Parental Networks, Social Closure, and Mathematics Learning: A Test of Coleman's Social Capital Explanation of Schoo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5): 661-681.
- Nan, Lin. 1999. "Social Networks and Socioeconomic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5, pp.467-487.
- Powers Daniel A. and Yu Xie. 2000. *Statistical Methods for Categorical Data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 Ragin, Charles. 1987. *The Comparative Metho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use, Cecilia Elea and Lisa Barrow. 2006. "U.S.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qualizing Opportunities or Reproducing Status Quo" *The Future of Children* 16(2): 99-123.
- Saltiel, John. 1988. "The Wisconsin Model of Status Attainment and the Occupational Choice Process," *Work and Occupations* 15(3): 334-344.
- Swartz, David. 2003. "From Correspondence to Contradiction and Change: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Revisited" *Sociological Forum* 18(1): 167-186.